

# '84年 肉類需給 및 流通改善方向



가공이용과장 李起福

〈농수산부 축산국〉

## 1. 머릿말

지난해 하반기 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축산물 가격이 새해에 들어와서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양축농가에 적지 않은 타격(打擊)을 주고 있다.

170만원하던 성빈우(成牝牛)가격이 150만원선으로 하락되었는가 하면 수송아지의 경우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100만원을 상회(上廻)하였으나 70만원선으로 하락하였으며, 두당 18만원 까지 양등(昂騰)되어 豚肉輸入까지 거론(擧論)케 하던 돼지 가격도 8만원 이하로 하락하게 됨으로써 政府收買까지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육계(肉鷄)의 경우도 kg당 600원선까지 하락함에 따라 수매(收買)를 실시하게 되었고 수매(收買)결과 가격이 회복(回復)되기 시작하여 새해에 들어서서는 1,100원선을 웃돌게 되므로써 물가(物價)의 안정적관리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지난 해에는 축산물 가격의 등락(騰落)의 폭이 넓어, 오름세에 양축을 시작한 분들에게는 적지않은 손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가격의 등락폭(騰落幅)이 크게 이루어 지게 된 현상은 매기(買氣)의 부진등 여러가지의 요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생산과잉이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과잉 생산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점도 있겠으나 양축을 하시는 분들의 폭넓은 경영기술의 부족에도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의 축산은 단순한 사양관리 기술도 중요하지만 주변사정을 예히 주시(注視)하고 관련 정보등을 토대로 하여 나름대로의 경영계획을 세워 무모하게 생산에만 치우치지 말고 산물의 유리한 판매가 이뤄지게 하는 기술이 있어야겠다.

돼지 사육 경기가 당장에 좋다고 하여 너도나도 기른 돼지 값의 하락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가격하락에 의한 어려움은 겪었으나 축산물의 유통(流通)등 각 분야에 적지않은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게 하였고 사상 처음으로 소 사육두수가 200만두를 돌파하게 되므로써 쇠고기의 자급율(自給率)을 높일 수 있게 한 뜻있는 해 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의 소득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고 도시인구의 증가와 핵가족 제도의 발전, 그리고 부부 맞벌이의 확산으로 식품의 소비 "패턴"이 바뀌어, 주곡(主穀) 위주의 식생활은 단백질 식품인 축산물 소비로, 가정식(家庭食)이 외식(外食)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앞으로의 축산물 수급을 이에 발 맞추어 나가도록 하여야 되겠다.

또한 우리는 '86, '88년도의 국제 행사를 대비하여, 축산물을 많이 이용하는 외국 손님들에게 불편이 없는 식사가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제품의 개발과 품질 개선 등 제반준비도 서둘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금년도의 축산물 수급은 물가안정에 기여 되도록 수급의 원활을 기하면서 생산비가 보장되도록 가격 회복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 2. '84축산물의 수요와 공급대책

지난 '83년도의 총 육류 소비량은 530 천톤으로써 쇠고기가 22%에 해당하는 115 천톤을 소비하였고 돼지고기가 295천톤, 닭고기가 120 천톤을 각각 소비 하였으며, 쇠고기의 전체 소비량 중 국내산으로 공급한 양은 57%에 불과한 66천톤이었고, 나머지 49천톤이 수입 쇠고기로 충당하였던 것이다.

금년도의 총 육류수요는 '83년도 대비 9.4%가 증가된 580 천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1인당 14.2kg을 소비하게 되는 양이다.

이에대한 육종별(肉種別) 내역을 보면, 쇠고기가 총 126천톤으로 연간 국민 1인당 3.1kg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중 국내

산으로 공급 가능한 양은 86천톤으로써 지난해 소 사육두수가 200만두를 돌파하게 됨에 따라 쇠고기의 자급율이 '83년도의 58%에서 금년도에는 68%로 제고(提高)시키면서 쇠고기의 수입량을 감축(減縮)할 계획인 것이다.

돼지고기 수요에 있어서는 지난 해보다 10.8%가 늘어난 327천톤으로써 국민 1인당 8kg을 소비할 전망으로 있으나, 연초부터 돼지 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가 가격이 낮아질 경우에는 그 이상의 소비증가도 예견되는 것이다.

닭고기에 있어서는 지난해 대비 5.8%가 늘어난 127천톤으로써 국민 1인당 3.1kg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되고, 우유는 지난해보다 약 20% 정도가 늘어나는 891천톤으로 국민 1인당 21.9kg을 소비 할 것으로 추정되며, 계란(鷄卵)에 있어서는 전년대비(對比) 3.4%가 늘어나는 280천톤으로 국민 1인당 6.9kg, 즉 125개를 소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축산물은 국내에서 자급(自給) 할 계획이며, 부족이 예상되는 쇠고기는 국내 생축가격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량(最少量)만을 도입하여 수급에 원활을 기할 계획인 것이다.

표1. 연도별 축산물 소비실적

구분 \ 연도별	1970	1980	1981	1982	1983	1984 (계획)
쇠 고 기 (1인당)	37천톤 (1.2kg)	100 (2.6)	93 (2.4)	107 (2.7)	115 (2.9)	126 (3.1)
돼지고기 (1인당)	83천톤 (2.6)	242 (6.3)	210 (5.4)	238 (6.0)	295 (7.4)	327 (8.0)
닭 고 기 (1인당)	45천톤 (1.4)	91 (2.4)	91 (2.3)	99 (2.5)	120 (3.0)	127 (3.1)
우 유 (1인당)	50천톤 (1.6)	412 (10.8)	558 (14.4)	593 (15.1)	729 (18.2)	896 (22.1)
계 란 (1인당)	2,456백만개 (77개)	4,543 (119)	4,431 (114)	4,505 (115)	4,936 (124)	5,089 (125)

### 3. 축산물 가격지지를 위한 시책

축산물의 가격을 지속적(持續的)으로 안정되게 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사육두수가 적정선(適正線)으로 유지되는 것이 주요하다고 보겠다.

따라서 쇠고기와 같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품목은 농가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적정두수의 생우(生牛)를 도입하여야 하겠으며, 생산 과잉이 예상되는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주기적으로 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널리 홍보하므로써 양축농가가 자율적으로 생산을 조절하게 하는 등 양축경영의 지표(指標)가 되도록 하면서, 정부 구매(取買) 등을 통하여 과잉분을 흡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대한 세부 시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생산조절 사업

생산조절을 양축농가가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함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이나 그렇지 못한 것이 또한 본 사업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쇠고기는 부족이 예상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생산조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닭고기는 계절에 따라 수급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으나 생산이 단기적 이어서 효율적인 생산조절이 어려운 품목이기 때문에 가격하락시에는 구매로써 가격이 지지되도록 하고, 가장 생산조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은 돼지고기인데 사육규모를 감안하여 등록 또는 허가등의 방법으로 과잉사육이 억제 되도록 할 계획이며, 대도시의 도매시장에는 조합별로 출하 두수를 배정하여 판로를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인 생산조절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도 검토 중에 있다.

#### 나. 구매비축사업

금년도 구매사업은 산지에서의 소, 돼지, 닭 값이 경영비 이하 수준으로 하락되는 시기에 시

행할 것을 계획하고, 축산진흥 기금으로 200억 원을 확보 하고 있다.

수매기관은 축협에서 전담토록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협회나 단체도 구매에 참여시킬 계획도 갖고 있다.

금년들어 산지(產地) 패지값이 경영비 이하 수준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지난 1월 10일부터 돼지 구매에 착수한 결과 두당 10천원 이상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돼지구매는 160천두를 목표로 비육돈, 육성돈, 어미돼지와, 새끼땀돼지(妊娠母豚)를 대상으로 하여 20두 미만을 사육하는 영세농가 분과 농어민 후계자나 자활촌(自活村)분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하였다.

#### 다. 수출 권장

수출은 국내 산지 생축가격 하락시 가격 회복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소나 닭은 수출 문호를 개방한다고 해도 가격면으로나 국내 수급상 어려움 실정이고 돼지의 경우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써 매일(尅日)수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월중에 77톤의 돼지고기가 이미 일본에 수출되었고 앞으로도 상당량의 수출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라. 축산물의 소비확대

전술한 바와 같이 쇠고기는 부족되고 돼지와 닭은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 하락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족이 예상되는 쇠고기의 소비는 줄일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내에서 자급이 가능한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소비가 증가되도록 육류간의 가격 격차가 크게 이루어 지도록 하면서 국민의 식성(食性)을 감안한 요리법과 육가공품의 개발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홍보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인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도 강화할 것이다.

#### 4. 축산물의 유통 개선계획

우리나라의 축산물 유통은 다양(多樣)하게 이루어지고 있을뿐 아니라, 상품으로서의 규격이나 거래 단위와 유통시설에 미비점이 허다 할뿐 아니라 비위생적인 면이 많은 실정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86, '88년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중간 마진을 줄여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히 보호되도록 개선 되어야 하겠으나 이러한 유통개선 사업은 당년(當年)에 이룰 수 없는 사업들이므로, 금년도에는 분야별로 본격적인 사업착수의 해로 정하여 연차별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첫째 :** 계란 유통의 개선을 위한 G. P. 센터(Grading and Packing Center)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할 것이다.

계란의 등급화와 포장화(包裝化)를 통하여 상품성(商品性)을 제고케 하고 계란 유통질서를 확립토록 함은 물론 위생적인 계란공급으로 국민 보건의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할 것이다.

본 제도가 정착하게 되면 계란의 저장 기간이 늘어나 수급조절 기능이 생기고, 주한미군부대 등 새로운 소비처가 늘어나게 되어 가격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금년도에는 5억원을 지원하여 1개소를 서울에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지방에까지 확대 할 것이다.

**둘째 :**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가공(加工)분야의 육성 발전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년전 부터 시설을 지원하고 육가공장 시설을 확장해 왔으나,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종합 육가공장 시설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2개소에 6억원을 지원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에 이바지 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 쇠고기 등급화를 위한 규격을 제정할 것이다.

비육우 및 육우 사육농가를 보호하고 비육기술통을 향상케 하여 육질(肉質)에 의한 가격형성으로 소비자도 보호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축협중앙회와 축산시험장이 공동으로 쇠고기 등급 규정을 제정토록 할 것이다.

**넷째 :** 축산물 거래단위의 개선이다.

현행 육류의 거래단위는 척관법(尺貫法)의 개념을 인용하여 600g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를 미터법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의 선택이 용이하도록 소분(小分)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다섯째 :** 대도시에 대한 지방육 반입(地方肉搬入)제도의 개선이다.

지난 83년도 서울시의 쇠고기 공급실태를 보면, 3개 도매시장에 생축(生畜)으로 출하된 두수가 75천두이었고 지방에서 도축후 반입된 두수가 25천두로써 총공급량의 25%가 지육(枝肉)형태로 서울에 반입(搬入)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축으로 서울도매 시장에 출하된 것은 대부분이 생산농가나 농축협을 통한 계통출하(系統出荷) 형태인 것이다.

지방육의 반입은 서울시의 식육판매 업자가 축산기업조합에서 발급하는 실수요자확인증(實需要者確認証)을 소지(所持)하고 정부(政府)가 지정한 12개 특별도축장에서 도살후 반입하여 자기 점포에서 판매토록한 제도로서, 이는 지난 '79년도에 산지 소값이 하락되어도 소비자 가격은 높게 이루어 지고 있어, 산지(產地)에서의 소 구매력(購買力)을 촉진하여 산지 한우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중간 유통 경비를 절감(節減)시켜서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 지방육 반입제도 시행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실수요자 확인증 발급 및 사용에 따른 부조리의 발생과, 반입과정에서 부정육(不正肉)이 편승(便乘) 반입될 소지(素地) 등이 있을 뿐 아니라, 지방 도축장 시설의 근대화 계획에 따른 신규 특별도축장 축에서도 서울 반입을 희망하고 있고, 생산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도 생산물의 자유로운 판매, 즉 생축(生畜)형태나 지육(枝肉) 형태로 임의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현 지방육 반입제도를 전면 개선할 계획인 것이다.

**여섯째 :** 서울 도매시장 시설의 이전 보완 사업이다.

서울 도매시장은 모두가 도심(都心) 지역에 위치하여 환경公害(環境公害)를 유발하고 있고, 3개 도매시장의 1일 도살 능력이 소 1,100두 수준이고 돼지는 4,000두 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명절등 육류 성수기(盛需期)는 물론 현재와 같이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도살 능력이 부족하여 육류 공급에 문제가 있고 출하농가가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도 해소하고, 보다 완벽한 위생 처리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축협 공관장을 서울시 가락동(可樂洞)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부지 4,000여평에 133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지하 1층의 현대식 시설을 갖추게 하여서, 현행대로 생축(生畜)의 도살, 경매(競買)와 아울러 생산자가 지방 특별도축장을 이용하여 도살한 지육(枝肉)을 상장(上場) 경매할 수 있도록 운영 할 방침이다.

**일곱째 :** 부정 축산물(不正 畜産物)의 유통근절이다.

그동안 부정(不正) 축산물의 유통에 대한 신고 및 단속업무에 온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많은 효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밀도살(密屠殺)이나 강제급수(強制給水) 등 불법행위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를 근절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행정단속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올해에는 밀도살이나 강제급수등 불량 축산물 거래행위를 범국민적으로 방지 및 근절하기 위하여, 이와같은 행위를 신고한 자나 검거한 자 또는 검거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축산물의 시가표준액(時價標準額)의 전액 또는 반액을 포상금(褒賞金)으로 지급하고, 전국 각 시군에 부정축산물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신고 및 단속업무가 신속 기민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이 불량 축산물의 유통에 대한 근절은 부정행위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국민 계도사업도 강화해 나갈 방침인 것이다.

**주소변경 통보를 바랍니다.**

월간 낙농비육회보는 협회에서 직접 우편으로 회원여러분께 보내드리기도 하고 유업체나 낙우회를 통하여 배부하기도 합니다. 협회에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는 대부분의 회원 성명 옆에다 아라비아 숫자로 된 회원번호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회보를 받으실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의 회원번호를 기재하시고 변경된 주소와 납유업체를 함께 적으셔서 협회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유업체나 낙우회를 통해서 구독하시는 분께서도 주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유업체나 낙우회에 연락하여 주고 금년도 회비를 4월중으로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보가 반송되는 일이 없도록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韓國酪農肥育協會 홍보실**